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욕구 변동 연구

배화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A Study on the Change of Needs for Using Rehabilitation Services of Injured Workers

Hwa-Sook Bae

Dep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어떤 요인들이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산재 근로자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재보험패널 1~3차 자료 5,004 관측치를 대상으로 STATA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횡단분석에서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경험, 재취업, 미취업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미취업,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앞의 횡단면 분석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의 연령, 학력, 경제활동 형태 등에 따라 재활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 정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 요양기간 종료 후 초기 개입 내용을 시기별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산업재해 근로자, 재활서비스, 재활서비스 필요정도, 직업훈련, 직업복귀, 패널 회귀분석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analyze how the utiliza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and the desire for service utilization changes with time, to explain the factors affecting service needs and to suggest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 for injured workers. Using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Data ver.1~3, this study analyzed 5,004 observations.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ATA to examine changes over time. Two key findings were made: firs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were age, educational period, ability on job performance,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re-employment and unemployment; second,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according to time were age, education period, unemployment, ability on job performance, and experience in using community services. That results we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ross-section analysi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and adjust the initial intervention contents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care on a timely base.

Key Words : Injured Workers, Rehabilitation service,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 Job training, Return to work, Panel regression

*This study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of the paper published at the 3rd WCI panel conference of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rresponding Author: Hwa-Sook Bae(peacebhs@cup.ac.kr)

Received May 11, 2018

Accepted July 20, 2018

Revised June 14, 2018

Published July 28, 2018

1. 서론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의 1/4 수준인데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숫자는 세계 최고라고 한다. 2016년 기준 재해율은 0.49%, 사망만인율은 0.96%인데 이것은 산업재해 사고로 매년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이다. 재해율이 낮은 것도 산업재해에 대한 은폐 때문일 수 있다는 추론도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산재재해의 81.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다수가 비정규직이거나 하도급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1]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이들이 산업재해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구조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예방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전의 삶을 회복하는데 있어 재활서비스는 산업재해보상서비스와 함께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는 집중재활치료, 합병증 등 예방관리, 중증·무의탁 진폐장애인 및 고령 산재 장애인을 위한 케어센터를 운영하는 의료재활서비스, 심리상담, 사회적응 프로그램, 가족화합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지원 등의 사회심리재활서비스, 그리고 원직장 복귀지원, 직업훈련, 재취업지원, 창업지원 사업 등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원직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심리재활 프로그램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복귀나 사회복귀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사회재활서비스를 희망하였다[2].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재활서비스는 일자리로 복귀하거나 그 이후 사회생활 적응에도 핵심적인 영향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근로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근로자를 둘러싸고 있는 신체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탐색 과정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의 유의미한 변화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 재활서비스 지원의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관점과 산재근로자의 요양종료 후 시기에 따른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재활서비스 이용 현황

을 살펴보고 재활서비스에 대한 필요 정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제공되고 있는 재활서비스가 산업재해 근로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일치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재활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직업복귀 뿐 아니라 사회복귀에도 영향을 주는 산재근로자 대상 재활서비스 이용실태 분석과 함께 재활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변화가 있다면 어떤 요인들이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산재근로자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는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1조 제1항 목적에 ‘재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8년 7월부터 직업재활 급여를 도입하였다. 직업훈련, 직장 복귀 지원,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지원 등의 급여로 산재근로자들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데, 2008년 10월부터 산재 근로자 1:1 사례 관리 제공을 목표로 맞춤형 서비스 도입하였으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 2011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체계를 갖추었다[2].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요양초기단계부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요양재활보상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말한다[3].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사회재활은 산재 장애인의 사회공동체 생활 및 참여에 있어서 가능한 한 어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그리고 건강관리, 자립생활, 직업준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직업복귀 및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산업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 관련 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최근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서비스의 직업복귀, 생활만족도 등과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4-6].

먼저 재활서비스의 의의와 관련하여 조성재 외(2015)

에 따르면,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과 상해의 결과 손상된 기능회복에 필요한 재활치료, 장애에 대한 심리 사회적 적응과 장애 수용 촉진,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한 직업복귀 활성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이 산재 재활서비스는 의료적, 사회심리적, 직업적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2]. 그리고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 입장에서 핵심 재활서비스는 직업훈련일 것이다. 직업훈련은 산재로 인해 손실된 노동 생산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직업경험을 되살려 줌으로써 직업복귀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키고 사회적응 자신감을 고취시킨다[7].

재활서비스 관련 변수와 심리학적 요인이 성공적인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8], 산재보험에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들의 재활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다. 제1차 산재패널 조사 결과, 직업 복귀자 중 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상담 받은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25.6%에 머물렀고, 작업능력 평가 및 직업 복귀 소견서를 받은 비율은 8.8%, 요양종류 이후 교육 및 직업훈련 받은 비율은 1.5%에 불과하였다.

한편 산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원직장으로 복귀한 이들을 대상으로 재활사업 정보격차가 직무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연구에서[9] 재활 프로그램 정보격차가 낮아질수록 원직장에 복귀한 사람의 직무만족과 일상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김은하의 연구에서는[10] 요양기간,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필요성 정도를 산재 요인으로 묶어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서비스 필요도와 삶의 질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재활서비스 필요성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았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재활서비스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재활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신체적 건강상태를 반영할 뿐 아니라 재활서비스를 통해 필요가 충족된다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윤진·이다미(2015)의 연구에서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가 궁극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정신건강 상태 내지 심리적 상태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이들의 현실적인 필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8]. 그리고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가 성공적인 직업복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이용했다라도 직장에서의 삶의 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재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두 연구가 있다. 먼저, 장유미·염동문의 재활서비스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11] 결과에서 의료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면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고,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면 일상생활만족이 높아지고, 심리사회재활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가 일상생활만족에 간접효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치료 후 장애를 갖게 된 산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지만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 재활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재활서비스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산재재활서비스를 종합적인 조합의 욕구로 이해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공하는 전동일·김상용의 연구에서는[12]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이용의향을 기준으로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첫 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 후속 재활서비스 욕구나 이용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분석과 함께 욕구 하위 유형에 따라 특정 산재재활서비스에 선호도 집단이 형성될 수 있으며, 장애 경중, 성별, 산업분야 등에 따라 재활서비스에 대한 다른 지향점을 가질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산재재활서비스와 그것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과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를 정태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는 직업복귀와 사회복귀에 대한 긴급하고도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에 재활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역동적일 수 있는 산재근로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료 후 재활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과 함께 재활서

비스 이용 욕구의 변화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재활서비스 공급 논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욕구 변동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자료는 산재보험패널이다. 산재보험패널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여 산업근로자 및 산재보험제도 환경의 특성과 장·단기 변화를 반영하고, 산재보험서비스의 정책욕구, 정책 효과 등의 논의를 위해 구축한 자료이다. 2012년 요양종결 근로자를 모집단으로, 지역과 장애등급 및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를 먼저 층화하고 성별, 연령, 요양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통추출하여 총 2,000명을 표집하여 2013년부터 조사한 자료이다[13].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산재보험패널 1차 년도(2014년)부터 3차년도(2016년)까지 병합한 자료이다.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1차 조사대상자 2,000명 중 2차년도와 3차년도 중 한 번이라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를 제외하여 총 1,668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3개년도 자료를 연결한 5,004개 관측치(balanced panel data)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와 재활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을 위한 기술분석과 시간에 따른 재활서비스 욕구 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 식별 기호를 기준변수(panel variable)로 조사 차수를 시간변수로 지정하여 패널분석에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3.0과 STATA/SE 14.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주관적인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를 질문한 재활서비스 필요정도는 10개의 측정 변수가 사용되었고 문항 신뢰도 Chronbach's α 는 .917이었다. 재활서비스 필요정도를 쉽게 인지하기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가 크다는 의미로 재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활서비스 이용

패널 1,668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산재근로자는 남성이 83.3%이고, 50대가 36.2%, 40대

24.9%, 60대 이상이 18.6%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44.7%, 중졸 19.1% 이었고, 산업재해 유형은 사고가 91.7%, 질병이 8.3%이다. 요양기간은 3개월 초과~6개월 이하가 41.8%, 6개월 초과~9개월 이하가 23.7%, 2년 초과도 2.6%에 이른다. 장애유형은 10~12등급 41.1%, 13~14등급이 27.7%였고 장애 없음도 17.6%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Category		N	%	Category		N	%
sex	male	1389	83.3	Accidents type	accident	1529	91.7
	female	279	16.7		disease	139	8.3
age	to 20's	98	5.9	Edu. Back ground	No Scho.	68	4.1
	30's	241	14.4		Elementary Gradu.	276	16.5
	40's	416	24.9		Middle S. Gradu.	318	19.1
	50's	603	36.2		High S. Gradu.	745	44.7
	than 60's	310	18.6		Over University Gradu.	261	15.6
	Impairment Rating	1~3	24		1.4	Care Period	below 3 m.
4~7		70	4.2	than 3 m ~ less than 6 m	697		41.8
8~9		134	8.0	than 6 m ~less than 9 m	396		23.7
10~12		685	41.1	than 9 m ~less than 1 y.	140		8.4
13~14		462	27.7	than 1 y. ~less than 2 y.	130		7.8
No Impair.		293	17.6	than 2 y.	43		2.6
				Total	1668	100.0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전의 삶의 모습과 질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즉 원활한 일자리 복귀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근로자 개인에게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1차에서만 조사되었다. Table 2에서 보면 조사대상자 1,668명 중 재활서비스 이용자는 53.0%이다. 재활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업재활서비스는 이용 경험 있음이 15.0%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의료재활서비스는 39.0%,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24.2%가 이용하였다

Table 2. Use of Rehabilitation Services

Category	Use of Service		No Using		Total	
	N	%	N	%	N	%
Rehabilitation service	884	53.0	784	47.0	1,668	100.0
Vocational Rehab. Service	251	15.0	1417	85.0	1,668	100.0
Medical Rehab. Service	651	39.0	1017	61.0	1,668	100.0
Socio-psychiatric Rehab. Service	403	24.2	1265	75.8	1,668	100.0

4.2 재활서비스 필요 정도의 변화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산재근로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재활서비스 필요 정도의 변화이다. 각 재활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도에 연차별로 응답한 비중을 Fig. 1에 제시하였다.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다소 낮은 편인데 그 중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서비스 내용을 보면,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재발 방지 및 건강 증진 위한 지원(합병증 예방 및 운동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등이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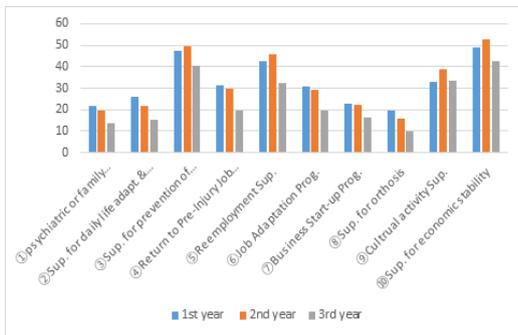


Fig. 1.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

연차별로 차이를 보이는 재활서비스 내용으로는 원직 장 복귀 지원, 재취업 위한 지원,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현장 훈련 등), 창업 지원(창업 컨설팅, 점포임차비용 등) 등의 내용은 1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의 필요도가 하락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오히려 1차년도에 비해 필요하다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요양종류 후 1년이 지난 후에 일자리 복귀 혹은 일자리 이동에 대한 서비스 필요 정도가 더 높다는 의미이다. 일자리 복귀와 관련한 산재보상서비스와 재활서비스는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 하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위에 제시한 논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시간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해 패널데이터의 선형회귀분석(OLS regression) 결과와 종단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에 아래 Table 3, 4와 같이 분석하였다.

Table 3.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var.		coef.	t	p
demographic	sex	0.406	1.51	0.131
	age	0.001	0.99	0.32
	education year	-0.007	-0.19	0.848
	care period	-0.237	-2.53	0.011
	levels of disability	0.027	1.35	0.176
	ability on job performance	0.486	9.98	0.00
use of rehabilitation service	Vocational Rehab.	-0.356	-1.15	0.249
	Medical Rehab.	0.19	0.09	0.93
	Socio-psychiatric Rehab.	-0.018	-0.07	0.942
	job training	-0.542	-2.15	0.032
	community service	-3.527	-4.18	0.00
employment status	work at n new firm	-1.211	-5.17	0.00
	self-employed	-0.140	-0.3	0.762
	unemployment	-2.421	-8.08	0.00
con		26.879	26.74	0.000
R2		0.0736		
F		28.30 (Prob>F=.000)		

OLS 모형에서 설명력은 낮다. 재활서비스 필요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요양기간’, ‘현재 직무수행능력’, ‘총 직업훈련 횟수’,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재취업’, ‘미취업 이었다. 현재 직무능력만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요양기간이 길수록, 직업교육훈련 횟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으면 재활서비스 필요 정도가 낮으며, 재취업, 미취업인 경우도 재활서비스 필요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산재근로자가 일관된 유형이 아님을 보여준다. 직장복귀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근로자와 요양기간이 길고 직장 복귀가 어려운 근로자 모두가 재활서비스 필요도가 낮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재활서비스 이용, 경제활동 형태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형의 적합성을 보기 위해 모형의 설명 정도와 오차 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패널 개체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 항과 종속변수와의 상관계수 추정치인 [14] corr(u_i, X_b)가 -0.9029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형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F검정의 결과(Prob>F=0.000)에서도 고정오차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설명변수로 투입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 분산에서 패널 집단이 특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9.72%로

나타났다(rho=.8972).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해 연령, 교육연수,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연계서비스 경험, 미취업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재활서비스 필요정도는 0.78 증가한다. 현재 직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재활서비스 필요정도가 증가하고, 교육연수는 부적관계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은 이들이 재활서비스 필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이들의 재활서비스 필요정도가 낮아졌는데, 지역사회연계서비스가 재활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자는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경제활동 형태에서 미취업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데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들에게 있어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필요는 취업이라고 볼 때 상대적으로 재활서비스 필요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panel regression analysis)

var.	Coef.	Std. Err	t	P> t
age	.7838	.0919	8.52	0.000
education year	-1.6177	.8040	-2.01	0.044
ability on job performance	.1802	.0715	2.52	0.012
job training	.42351	.4350	0.97	0.330
community service	-1.5327	.7336	-2.09	0.037
work at n new firm	-.6472	.5047	-1.28	0.200
self-employed	.8696	.7800	-1.11	0.265
unemployment	-1.6392	.5109	-3.21	0.001
_cons	6.5084	9.6569	0.67	0.500
R-sq: within = 0.0462		Number of obs = 5004		
between = 0.0023		Number of groups = 1668		
overall = 0.0010		F(8,3328) = 20.14		
corr(u_i, Xb) = -0.9029		Prob > F = 0.0000		

여기서 유의할 것은 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에서 영향요인과 차이점이다. 회귀분석에서는 연령과 학력, 미취업이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시간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종 직업 훈련 횟수와 재취업은 유의미한 요인인데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학

력은 횡단적으로 보면 영향이 없는데 요양종결 후 3년이라는 전 기간의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할 때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필요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이들의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재취업한 이들이 재활서비스 필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도 일면 예측 가능한 결과이긴 하나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면 재취업 경제활동 형태는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세 차례에 걸친 산재패널조사에 모두 응답한 산재근로자 1,66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으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이용 현황과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이들은 53.0%, 세부적으로는 직업재활 15.0%, 의료재활 39.0%,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 24.2%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자원서비스 이용 경험 비중은 더 낮아져 1~3차년도 이용자 모두를 합산하여도 68명에 그쳤다.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에서 확대하길 원하는 분야는 건강증진, 취업관련 분야가 주를 이루었고 재활서비스 필요정도를 나타내는 평균은 높지 않았다.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교육연수,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경험, 재취업, 미취업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미취업,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경험으로 앞의 횡단면 분석과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활서비스 공급과 이용에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서비스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난 원직장 복귀, 재취업 위한 지원, 재발 방지 및 건강증진 지원,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서비스에 자원을 집중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중 타당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하여 '오차 항과 독립변수간 상관이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Prob>chi2 = 0.000) 대립가설을 선택,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자 개인특성에 따라 필요한 재활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 정도가 다를 때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사회복귀에 필수적인 재활서비스 내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 기관의 지역 균형 배치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도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 재활서비스, 지역사회연계서비스 등 이용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중이 낮지만 특정 분야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고, 이용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산재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것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재활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재활서비스 제공 계획이 필요하다. 산재근로자의 일차적 욕구인 직장복귀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처럼[15] 산재근로자의 연령, 학력, 경제활동 형태 등에 따라 재활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정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 요양기간 종료 후 초기 개입 내용을 시기별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3차까지 조사된 산재보험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필요도의 변화 정도와 영향 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패널조사는 5년 단위로 패널을 유지하는 조사인만큼 3차에 이른 조사결과만으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조사결과에 따른 재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향후 공개될 1~5차 자료 전체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필요 변화를 추적하는 것과 아울러 서비스를 이용한 패널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직업복귀와 재활 등에 미친 영향 그리고 재활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J. H. Yun. (2018.3.20.). The work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for "irregular workers and subcontracted workers" who are in the blind spot of industrial accidents. <http://www.gokorea.kr/news>

[2] S. J. Jo, S. W. Lee, C. K. Song & Y. J. Park. (2015). Rehabilitation Services Needs Among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nd Employer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5(1), 85-103.

[3]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16). *2016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Operation Guide*.

[4] S. W. Do. (2014). A Study on Supporting Management Strategies of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7(2), 249-269.

[5] Y. Y. Choi. (2009).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Service and Policy for injured Worker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9(1), 121-142.

[6] H. R. Shin & M. I. Kim. (2015).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habilitation Services and Return-to-Work: Analysis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5(1), 105-129.

[7] S. W. Lee & H. J. Park. (2007). A Study on the Return to Work Factors for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7(1), 85-103.

[8] Y. J. Lee & D. M. Lee. (2015). The Study on Needs for Using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uccessful Return-to-work of Injured Workers: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6(3), 3-27.

[9] H. J. Shim & H. S. Lee. (2016). Influence of Qualitative Gap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s Rehabilitation Programs on Satisfaction with Work and Daily Life -Mediation Analysis for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1), 143-154.

[10] S. M. Kim & E. H. Kim. (2015).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Injured Workers : Focusing on the Psycho social Factors,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6(4), 389-411.

[11] D. G. Chun & S. Y. Kim. (2017). Need Types and Explanation Factors of Rehabilitation Service of Industrial-Accident Workers, *disability & Employment*, 27(4), 5-23.

[12] Y. M. Jang & D. M. Yeu. (2015). A Study on the Interac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 and Life Satisfactio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Journal of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9(4), 275-283

[13]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http://www.kcomwel.or.kr/Researchinstitute>

- [14] I. S. Min & P. S. Choi. (2015). *STATA : advanced panel data analysis*. Seoul : Jifeel Media.
- [15] H. S. Bae. (201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Transition and Factors Influencing Labor Market Transition of Injured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9(3), 193-212.

배 화 숙(Bae, Hwa Sook)

[정회원]



- 1993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사)
- 2004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보장, 노동시장이행, 지역사회복지
- E-Mail : peacebhs@cup.ac.kr